

목어

'크리스마스 씰'



윤제학
취재2부장

'크리스마스 씰'.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비록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긴 하나 우리네 '십시일반'의 전통과 맥이 통한다.

크리스마스 씰은 산업혁명 이후 전 유럽에 결핵이 만연했을 때,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장이었던 아날 홀베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연말 우편물에 동전 한 닢 짜리 씰을 붙이면 결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발상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32년 12월에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성금 운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53년에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파는 방식. 아직도 학교를 중심으로 강매에 가까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이런저런 이유의 모음이 많은데 더 이상 이런 방식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인쇄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우표를 붙이는 편지를 거의 써 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는 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는 '씰'의 판매 목적이 지극히 선한 데 있고, 그 액수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판단의 중심이 흔들리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의 '일리'를 다 고려해 볼 때,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결핵 환자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성금을 모으는 방식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두레와 품앗이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성금 자체를 혐오하거나 자발성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본지 논설위원

사형제도가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부합할 수 있는가.

1994년 10월 10일의 강주영(양씨) 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중 3명에게 95년 2월 24일 오전에 부산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원○(24세), 공범 옥○○(27세), 남○○(19세·D역전 비서과) 피고인 등 3명은 살인누명을 벗었고 죽은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이자 양의 3명과 함께 범행을 했다고 최종 진술 때까지 주장했던 이○○(19, 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 무기형)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있는지 반문하게 만든다. 미국에서도 1976년 사형제도가 부활된 이후 800여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중 102명이 무고한 시민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사형수의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었으며 일부는 정신질환자 였는데 우려와 불안이 교차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제도가 폐

대한 사형이 집행됐던 점에 비춰 볼 대선 이후에도 대거 사형이 집행될 우려가 크다. 지난 10월30일 국회의원 154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화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날 제출된 특별법안은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이 흥

자체가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해 아무 효과가 없다. 살인범죄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 사회가 범죄를 모방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박탈 할 권리가 없으며, 사형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안된다. 따라서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 사형제도란 범죄의 원인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직설적이고 간단하게 풀이하려는 정치적 해결책 이상의 의미는 없다.

11월 30일은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장한 '사형제도 반대の日'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회하는 자의 생명도 소중

이 사건은 137일만에 제 1심이 모두 끝났다. 결국 검·경 실적위주의 짜맞추기 식 수사였음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경철이 무고한 시민을 흉악범으로 몰아 공소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형사법이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얼마나 지켜주고

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 105개 국가에서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국내에서는 사형수가 서울 구치소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교도소에 60여명이 분산 수감되어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인권장부'에 들어와서 단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번 대선 이후 김영삼 정권말기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23명에

악법을 재판할 때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복역 후 15년까지는 가석방, 사면, 감형을 금하는 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인간이 인간이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경시하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세이다.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열린 마당

불교여성개발원이 11월 26일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열었다. '행동하는 여성, 실천하는 불교'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0 해수 교수(동국대 불

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이윤수(KBS 방송작가) 씨가 여성불자의 정체성과 불교여성운동의 흐름 그리고 여성불자와 불교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내 놓았다.

여성불자의 정체성과 역할

불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불자들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불교수행자로서의 목표와 자신의 일상적 경험들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원과 수원의 두 개 사찰에서 총 100명의 여성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즐겨 읽는 경전은 금강경(34%), 화엄경(24%) 천수경·반야심경(각 15%) 순이며,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교리로서는 인과응보 참회 보시를 들었다. 또 주요수행 방법은 염불기도 독경사경 참선 봉사 순으로, 여성의 성불을 믿는지에 대해서 매우 믿는다(13%) 믿는 편이다(61%)라고 응답했다. 간단한 조사지만 현실에 대한 어느정도 인식 경향을 읽을 수



이혜숙
(동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이윤수
(KBS 방송작가)

근현대불교사에서 여성불교 운동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불교여성 단체의 색깔로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지 지부진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

불교 여성 단체의 조직화 문제는 한결같은 과제다. 비조직화가 활동의 부진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급자 숫자가 많다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영입해 사안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 오늘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견재한 모습으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갖고 펼쳐온 작업에 기인한다. 시대 상황에 맞게 이슈를 찾아내 문제제기 하고 대화적인 역할

인식·행동선택 파악위한 조사 시급

있다. 여성불자의 인식과 행동선택 사이의 인과와 그 양태-여성불자의 정체성-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여성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불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불자들에게 신자가 된다는 것이 자칫 교리적 믿음과 자기현실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의 차이조차 느끼지 못하게 호도하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종단이나 불교여성개발원 혹은 개인 연구자들이라도 좀더 심층적인 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삼아 정책을 세우거나 불교운동의 방향을 조종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여성불자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여성불자들이 잠재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체색깔 맞는 적극적 역할 모색을

을 수행해온 순발력이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가령 북한산도로 관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을 때 어떤 불교여성 단체가 방문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

이제 불교계의 제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고양시키는 활약을 기대한다. 아울러 교단내의 원고한 남녀차별 문제에 적극 나서고 비구니스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추동해내는 역할이 절실하다.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여성 해방의 관점에 입각해 있는가를 역설하는 일보다 단체 성격에 걸맞는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일, 여성불교 회관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하나라도 꾸준히 지속해나가고 사회 속에서 불교적 실천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불교 여성단체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과제다.

이렇게 들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남경멸은 자기 상(傷)하게 하는 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베트남 판 한국어 교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 우리들의 얼굴을 붉게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갖고 다니는 이 교재는 2년 전 베트남 현지의 인력 송출회사 직원이 만든 것이다. 70쪽 남짓한 교재 중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은 한국어 교재에 대처하는 말들을 적은 부분이다. 이 한국어 교재에는 '다시 때리면 다른 회사로 갈거예요' '그만 욕하세요' '당신은 남자인데, 왜 여자를 때려요' 등의 표현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나와 있다. 한글을 모르는 베트남인들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음을 달아 놓았다.

외국인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가 몇몇 있지만 의례적이고 좋은 말만 있다"며 "이 교재가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만든 교재라고 베트남 노동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국내 거주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살고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물어본 종족인가 그것을 묻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고 물려라. <잡아할 순타리경>

사람이 태어난 곳은 각각 다르나 다만 깨끗한 계를 가지게 하고, 무거운 짐의 번뇌를 떠나 순수하고 한결같이 범행을 닦으면, 그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요, 잘 건너는 이다. <잡아할 성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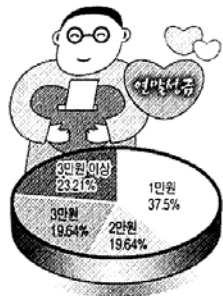
바른 법을 알들히 닦아 익히고 착하지 않은 입을 멀리 떠난 협약한 세상에서 평등하라. <잡아할경>

남을 경멸하는 자는 자기를 훼손하는 것이다. <화수경>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佛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증일야합경>

불자의 생각

이웃돕기 성금



"불우이웃돕기 동참" 88.5%

기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얼마정도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37.5%(21명)가 1만원 선을 내고 싶다고 했으며 2만원과 3만원에는 각각 19.64%인 11명씩 몰려왔다. 3만원 이상을 내겠다는 마음을 보인 응답자도 13명이나 됐다.

일연대기자

치악산 구룡사 천불전 및 심검당 신축준공 대법회



치악산 구룡사는 지금부터 1400여년전 AD666년 신라 문무왕 6년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강원영서 제일의 가람이며 창건이후 도선국사, 무학대사, 서산·사명대사 등이 수행한 호국도량입니다. 소납이 주지부임이후 조국통일, 국태민안, 불교중흥을 위하여 천일기도를 봉행중인바 금번 구룡사 중흥불사 일환으로 천불전과 심검당 신축준공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양 12월 11일(수) 10시
- 장 소 : 치악산 구룡사
- 중 명 : 김인어 큰스님(일정사 회주) 김현애 큰스님(일정사 주지)
- 연락처 : 033)732-4800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구룡사 주지 (자광)이 원행 합장